

서울시립대 “상상하고 상생하는 새로운 100년”

올해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윤희)가 발표한 '2040 비전체계'에는 교훈과 비전, 비전실천을 위한 목표가 담겨 있다. '진리·창조·봉사'라는 교훈을 통해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육하고 연구하고 있다.

서울시립대가 새로운 비전으로 내건 '상상선도'는 대학 구성원이 함께 모여(相) 교육과 연구를 생각(想)하며,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모여(相) 협력의 가치를 생각(想)한다는 의미이자 상생(相生)의 가치를 바탕으로 시대를 선도(先導)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런 의지는 '서울의 자부심이 되고 시대를 선도하는 대학으로 성장한다'는 비전실천 목표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

비전 실현을 위해 △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전문성과 인성을 갖춘 인재 △ 자율의지와 융합적 사고로 미래를 여는 인재 △ 협력과 소통으로 함께 가치를 창출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힘을 쏟을 방침이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모두를 포용하는 대학으로서 지역사회와 함께 고민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대학으로 성장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립대는 특히 도시과학 특성화 대학으로 자리매김한 서울시립대의 특성을 활용해 남북 대학 교류와 북한 대도시 문제 해결을 선언했다.

원윤희 서울시립대 총장은 "교육적 측면의 노력뿐만 아니라 전국 유일의 4년제 공립대학으로서 가지고 있는 사회 환원의 책무, 배움과 나눔의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난 100년을 거울삼아 새 100년을 향해 도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봉사프로그램 &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사업

서울시립대는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졸업자격을인증제 사회봉사지역'을 신설 적용해 학생들이 재학 중 30시간 이상 국내 봉사 활동에 참여해야 졸업할 수 있도록 했다.

졸업자격을인증제 사회봉사지역 도입 이후 각종 교내외 봉사활동에 참여한 인원은 2015년 3천816명, 2016년 4천242명, 2017년 4천348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런 봉사 역량은 대외적으로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이 주관하는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사업'의 경우, 서울 소재 대학 중 유일하게 2016년부터 3년 연속 권역별 사업 주관대학으로



선정됐다.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7천여만원이 늘어난 5억6천여만원의 지원금을 받아서 2018년 6월 현재 서울지역 내 100개 초·중학교, 지역아동센터 등에 대학생 멘토 320여 명이 학습·진로 멘토링을 실시하고 있다.

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서울시립대는 대학 생활주기별 3단계 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 진로 설정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20개의 학년별 역량 강화 세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단계(직무이해 및 진로선택) : UOS 1:1 진로·취업 멘토링, 진로 니침반 등 4개 프로그램을 전 학년 대상으로 운영해 로드맵 방향을 설정

▲2단계(취업훈련 및 경력개발) : 실전면접캠프, 취업동아리 운영 등 13개 프로그램을 3~4학년 대상으로 운영해 역량 향상 지원

▲3단계(취업정보 제공) : 기업 직장 체험 프로그램, 기업 채용설명회 등 3개 프로그램을 주로 4학년 대상으로 운영해 채용 정보와 인턴십 기회를 제공

이밖에 산업체 연계 강화를 통한 사회수요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재직자, 인사담당자, 취업상담 전문가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확대해 실제적인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햇살이 나무에게 하듯.

줄기 뻗어 열매 맺듯
세상을 향해 무럭무럭
자라날 젊음에게.

서울시립대학교가
미래까지 환히 밝힐
찬란한 배움을 전합니다.

배움과 나눔의 100년
서울의 자부심,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2019학년도 정시 신입생 모집

| 원 서 접 수 | 2018. 12. 31.(월) 10:00 ~ 2019. 1. 3.(목) 18:00

| 합격자 발표 | 2019. 1. 29.(화) 17:00 예정

| 문 의 | 02)6490-6180~1 <http://admission.uos.ac.kr>

※ 전형일정 및 세부사항은 [2019학년도 정시모집 입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